

상용차산업 경쟁력 강화 나선다

전북의 주역, 자동차산업 지역노동계와 의기투합... 미래비전·목표 공유

전북도와 민주노총전북본부가 상용차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 마련에 나섰다.

도는 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이원택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민주노총전북본부 김기자 수석부본부장, 금속노조 차덕현전북지부장, 타타대우상용차 우재완 지회장, 현대자동차전주공장 배철수부의장, 이성수 자동차융합기술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용차산업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 지역 자동차산업이 안고 있는 여러 현안에 대해 노

와정이 함께 고민하고 공감 영역을 넓혀가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지역은 현대자동차전주공장, 타타대우상용차가 주력품목으로 상용차를 생산하고 있어 국내 중대형 상용차의 94%를 차지하는 상용차 집적지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와 국내 상용차시장에서 수입차 점유율 확대로 빠르게 자동차산업의 침체가 진행되고 있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기술력과 새로운 성장동력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러한 자동차

산업 경쟁력 제고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고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전북 자동차산업의 비전과 전략도 공유했다.

이원택 정무부지사는 "행정과 노동계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의견을 모아간다면, 현재 자동차산업이 처한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회의를 통해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상용차산업 육성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태권도의 날 기념식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4일 무주 태권도원 평원관에서 열린 태권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태권도 발전 유공자 표창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16면,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전북도 찾아가는 관광서비스센터, 수도권 관광객 공략

전북도가 수도권지역 관광객 유치 및 전북 관광 홍보를 위해 추진하는 '전라북도 찾아가는 관광서비스센터'가 대한민국 대표 종합 테마파크인 서울대공원에서 수도권 관광객 집중 공략에 나섰다.

'찾아가는 관광서비스센터(이하, 이동관광안내소)'는 고정식 홍보방식에서 벗어나 이동력을 확보해 다중밀집지역으로 직접 찾아가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운영되어 왔다.

전북도는 갈수록 주말을 이용한 국내관광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수도권 잠재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서울시와 상호 홍보 협의를 통해 서울대공원 주차장 입구 광장 및 코끼리열차 탑승장 등에서 이동관광안내소를 운영한다.

서울대공원은 서울동물원과 서울랜드, 캠프장 및 국립현대미술관이 있는 대한민국 대표 종합 테마파크로 연 방문인원 217만3000명(2018년)으로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으로 홍보 효과가 클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는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은 점을 감안해 톨렛판을 이용한 전북관광지퀴즈 맞추고 선물 받기, 제기차기 등 민속놀이를 통한 참여형 이벤트를 실시한다.

또한, 시군 가을축제와 추억이 담긴 시골마을을 작은축제도 적극 홍보하며, 전북 지방문 유도를 위해 전라북도관광지 동영상을 촬영하여 같은 곳을 방문해 인증샷을 남기는 도외지역 참여자에게 한옥마을 숙박권과 전북투어패스 이용권을 제공하는 이

벤트를 진행하는 한편, 시군축제와 더불어 각종 이벤트 정보도 적극 홍보한다.

황철호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기동성을 확보한 이동관광안내소를 적극 활용하여 도외지역 여행객 방문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풍요로운 한가위를 맞아 추석 연휴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전북을 방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올해 초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휴게소를 시작으로 지난날 신대주-부안 고속도로(주)와 공동 마케팅 협약을 체결해 휴게소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북관광 홍보를 실시했다.

또한, 전주한옥마을 대성공영주차장과 지방자치단체개발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관광지 정보 안내와 생수 제공 등 전북지역 방문객을 따뜻하게 환영하기도 했다.

/김진성 기자

중앙선관위, 추석 전후 정치인 위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들의 금품 제공 등 위법행위 특별 예방·단속 활동에 돌입한다.

중앙선관위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국적으로 특별 예방·단속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4월15일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돼있다. 중앙선관위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추석 때 할 수 있는 행위는 ▲선거일 180일 전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 인사말이 담긴 문자 메시지 전송 ▲평소 지인들에게 의례적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입후보 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할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반면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

귀경버스 무료 제공,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 제공 ▲선거구민에게 선물 제공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 게시 또는 인사장 발송 행위 등은 할 수 없는 행위로 꼽았다.

중앙선관위는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계를 유지한다면서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구·시·군 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전북도, 추석 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응 비상근무

전북도 산림부서는 이번 추석 명절 동안 산불발생에 대비해 추석 연휴 기간 산불예방 특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

도는 최근 잦은 비로 산림 내 습도가 높아 산불 위험도는 높았지만, 추석 연휴 기간에 고향을 찾는 귀성객 등 일시에 많은 사람이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추석연휴인 12~15일까지 '추석 명절 산불방지 특별대응 기간'으로 정했다.

추석날은 많은 성묘객이 산림을 찾을 것이 예상됨에 따라 성묘객에 의한 벌초, 부산물과 쓰레기 소각행위 등으로 동시 다발적인 산불발생 위험성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도·시군 산림업무 담당 부서는 성묘객, 산약초 채취 등 입산자가 많은 산별 취약지에서 집중적인 산불예방 및 입산물 무단 채취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버섯, 밤, 산약초 채취 등의 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방지 및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도 및 시·군 산림부서에서는 연휴 기간 산불상황실을 운영하고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산불 발생 시 초동진화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태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산불발생에 매우 취약한 공원

묘지, 사찰 주변 등 성묘객들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산별과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계도·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익산산림항공관리소, 소방서,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산불발생시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초동진화 체계를 유지하는 등 산불방지 및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도 산림부서 관계자는 "한순간의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이번 추석 명절에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전 도민이 산불조심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대한민국 게임기업 유럽시장 진출 가능성 입증

에쉬컴퍼니, 독일 게임스컴 통해 콘텐츠 제휴·판매 나서

전북도와 전북 글로벌게임센터가 도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및 투자 확보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와 글로벌 게임센터는 올해는 독일 쾰른에서 지난달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열린 게임스컴 행사에 도내 게임기업(에쉬컴퍼니(대표 황의석)의 참가를 지원했다.

유럽 최대 게임쇼 게임스컴은 전 유럽 게이머들의 축제인 만큼 수많은 유럽 게임 제작사들이 참여했으며, 역대 최대 인원인 37만3천 명의 관람객이 현장을 찾았다.

또한 비즈니스 목적으로 게임스컴을 찾은 해외 바이어들도 작년 대비 100명 늘어난 3만1천300명을 기록했다. 도내 가상현실(VR) 업체인 (주)에

쉬컴퍼니는 이번 행사에서 ▲스페이스델타 ▲헌티드 VR ▲키즈 VR 등 대표 콘텐츠 3종을 게임스컴에 선보였다.

당 행사에서 유럽 내 VR 콘텐츠의 확산을 위한 (주)에쉬컴퍼니의 비즈니스 매칭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콘텐츠 제휴와 판매 및 개발 협업을 위한 적극적인 마팅이 진행되었으며, 이날 2개 기업(네덜란드, 폴란드)과의 NDA(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행사 후 실제 유럽시장에서 VR 콘텐츠나 VR 어트랙션 기기 구매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 향후 다른 도내 게임 기업의 시장 진출 역시 기대되고 있다.

(재)전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최용석 원장은 "앞으로 전세계 시장으로의 게임 수출 및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업 콘텐츠의 완성도를 높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번 게임스컴 참가를 통해 도내 게임기업의 유럽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기존 인프라 개선과 콘텐츠 강화에 힘을 기울인다면 향후 가시적인 사업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